

식품업체의 동향

오직 건강을 위해 외길을 걸어온 (주)정·식품의 21세기 새로운 도약

(주)정·식품 홍보팀 김 대 권 팀장

우리나라 두유 역사의 첫 장을 연 (주)정·식품은 1973년 설립 이래 30여년을 한결같이 영양가 높고 건강 지향적인 자연식품의 연구개발에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국민건강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소비자의 끊임없는 성원에 부응하고자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라 할 수 있는 두유공장을 청주에 완성했으며 이어 첨단 연구 기자재를 갖춘 중앙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제품의 질 향상과 연구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정·식품 중앙연구소는 창립자인 정재원 회장의 인류건강문화에 이 몸 바치고자 라는 원대한 이념을 받들어 시대가 요청하는 식물성 자연 식품을 다양하게 연구 개발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84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과 함께 설립된 이후 제품 연구와 개발에 주력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식품생산에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에 힘입어 현재 서구화되어 가는 현대인의 식생활에 있어 부족되기 쉬운 식물성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영양음료 베지밀류와 여러 형태의 환자들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특수영양식품 그린비아류, 청량음료의 새로운 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세대 청량음료 썬폰드류가 생산되어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베지밀의 우수성 인정

한편 1993년 9월 창립자 정재원 박사께서는 인도 마이소아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 식품총학회에서 우유와 두유의 혼합밀크 베지밀 유스에 대해 발표하여 대단한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1994년 2월 미국 아리조나주 메사에서 열린 제1회 국제 대두심포지움에서도 베지밀 유스를 전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여러 동물실험을 통해, 두유와 우유를 2대 1로 혼합하여 만든 베지밀 유스를 섭취하게 되면 동물성과 식물성 영양소가 서로 보완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개별제품만을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호주에 낙농 발명 특허를 제출하여 1995년 미국과 호주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았다.

새로운 도약에의 시도 - 신제품 개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정·식품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식 특수영양식품인 '베지밀 토들러'를 비롯하여 가공두유인 '팬다빈시리즈', 베지밀에 녹차성분을 함유한 '녹차베지밀'을 자체 개발하여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영·유아식 특수 영양식품 베지밀 토들러

'베지밀 토들러'는 첫돌부터 36개월 사이의 아기를 대상으로 한 유아식으로 돌이후의 신체건강과 두뇌개발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고려한 제품이다. 두뇌와 시력발달이 향상되도록 DHA전구물질과 타우린을 강화하였고 신경발달에 필수 성분인 콜린을 증강시킨 제품. '아장아장 걷는다'란 뜻의 베지밀 토들러는 이미 출시된 베지밀 네오인펀트, 인펀트와 함께 전문화된 단계별 유아식으로 유아식 시장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정·식품의 베지밀 3단계 유아식은 한국인인 미국인 영양권장량,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에 맞춰 성장단계에 따른 영양을 과학적으로 구성한 제품이다.

구 분	신생아식	성장기식	유아기식
한국인영양권장량(KORDA)	0~4 개월	5~11 개월	1~3 세
미국인영양권장량(USRDA)	0~6 개월	6~12 개월	1~3 세
세계보건기구 권장량(WHO/FAO)	0~6 개월	6~36 개월	
자사해당제품	베지밀 네오인펀트 (신생아부터 5개월까지)	베지밀 인펀트 (6개월부터 첫돌까지)	베지밀 토들러 (첫돌부터 36개월까지)

가공두유 팬다빈 초쵸, 나나, 베리, 러플

'팬다빈 초쵸, 나나, 베리, 러플'은 각각 새로 개발된 가공

두유 초코맛 베지밀, 바나나맛 베지밀, 딸기맛 베지밀, 사과맛 베지밀 제품으로 4월 중순 시판에 들어갔다. 특히 새로 개발된 신선한 캐릭터와 패키지는 어린이 취향에 적합하여 또 한 차례의 캐릭터 열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메인 캐릭터는 팬더곰의 변형인 '팬다빈'으로 어린이 취향에 맞는 귀엽고 깜찍한 모습이 돋보인다. 그리고 보조캐릭터인 초쵸, 나나, 베리, 러플이 팬다빈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팬다빈과 초쵸, 나나, 베리, 러플은 가공두유 시리즈와 함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캐릭터와 제품 홍보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TV-CF와 팬다빈 홈페이지(<http://www.pendabean.co.kr>)가 아이들의 눈길을 끈다.

싱그러운 자연을 그대로 녹차베지밀

녹차와 콩의 영양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건강음료 '녹차베지밀'이 4월 중순 시판에 들어갔다. 녹차베지밀은 콩으로 만든 두유에 녹차의 성분을 혼합해 영

양적 가치를 더욱 높인 제품으로, 콩의 고소한 맛과 녹차의 씹쓸한 맛의 어우러짐이 일품. 특히 녹차의 EGCG와 폴리페놀 성분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는 여성과 중장년층인 성인들의 건강에 좋다. 또한 콩의 풍부한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있어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에게 사랑받는 음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식품의 현재와 밝은 미래

2000년 7월 현재 전국에 11개 베지밀영업소와 10개 선문드영업소를 중심으로 500여개 대리점이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고객의 의견 수렴과 보다 많은 정보 제공 및 베지밀 홍보를 위한 1,000여명의 건강레이더들이 영업 전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내수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두유업체의 선두주자 (주)정·식품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기업이 되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만을 목표로 여기는, 결코 외롭지 않은 외길 질주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